

존경하는 서울공대 교수님께,

제 32 대 서울공대 학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제가 지난 1 년 동안 만나 뵈고 경청한 내용들을 요약하여 공유합니다.

함께 만들어 가는 서울공대 청사진의 기초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중복된 현안도 있어서 어떤 현안들은 여러 번 유사하게 언급되기도 하였습니다.

제게 서울공대 학장의 기회를 주신다면,

99 번까지의 현안들을 하나 하나 취임 즉시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해 가겠으며,

100 번 이후부터는 교수님들 누구나 채워나갈 수 있도록 열어 놓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들의 기탄 없는 의견들이

서울공대 대전환을 위한 담론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2024 년 4 월 13 일

서울공대 대전환의 시작점

학장예비후보 기호 1 번 김영오 드림

< 경청의 시간 >

*기간: 2023년 4월 ~ 2024년 4월

*작성: 학장예비후보 기호1번 김영오

번호	현안 내용	구분	처리 상태
1	지난 학장단 시절 만든 TF 보고서의 훌륭한 내용들이 거의 모두 사장되어 아쉬웠다	학장	
2	AI 조교는 강의 자료를 쌓여야 가능한데 우리의 노력은 전무, 공학교육혁신센터에 혁신 교육공학기술이 있는가?	교무	
3	서울공대 자긍심과 위상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아공학인상을 신설하는 것은 어떤가?	기획	
4	학생 케어가 가장 중요하다. 입시에서는 의대로의 유출, 진로에서는 산업체에서 다 뽑아가는 시대가 되었다	학생	
5	서울의대에서 의과학자가 되려고 카이스트를 간다. 군 혜택 때문에 그렇다	학생	
6	국방과학사관제도 확충 등 서울공대의 외연을 여기 저기 넓혀야한다	학생	
7	인건비 제외 서울대 예산 중 30% 이하만이 서울공대 연구비로 책정되어 외부평가에서 감점의 요인이 된 적이 있다	연구	
8	이탈자가 너무 많다. 상담 등에 있어 본부와 더불어 공대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학생	
9	신임교수 채용시 offer letter가 너무 늦게 도착해 외국에서 거의 못들어 올뻔 했다	교무	
10	다전공 활성화가 오히려 중소 학과 이탈을 부채질하고 있다	교무	
11	훌륭한 공대 동문상이 너무 기업에서 성공한 분들에게 치우치는 것은 아닌지?	학장	
12	인구절벽 시대 서울공대의 역할은? 서울공대가 망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학장	
13	임용절차가 너무 길다. 서울대가 다른 대학보다 채용 확정을 먼저 발표해야한다	교무	
14	'의공학'은 더 활성화 되어야 한다. 왜 '의과학'만 언론을 타는가?	홍보	
15	1, 2학년 과목을 모두 S/U로 하면 어떤가?	교무	
16	서울공대 학생들은 타 단과대학 학생들을 더 자주 만나야 한다. 그게 서울공대의 장점이다	학생	
17	창업이 너무 많아졌다. 교육/연구/공헌의 종합적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창업	
18	일반수학보다 공대에서 가르치는 공학수학 만족도가 높다	교무	
19	교수 채용과정에서의 면접비를 교수 채용되고 3월에 받았다. 임금체계를 알려주지 않은 채 월급도 모르고 임용되었다	교무	
20	루키를 잘 뽑는 보스턴 레드삭스 전략과 베테랑으로부터 전수 받는 뉴욕 양키즈 전략 중 서울공대는?	기획	
21	많은 대기업이 그동안 대학 연구 투자에 인색했다	연구	
22	새로운 분야로의 전환도 좋지만, 학과학부의 identity가 흔들리고 있다	기획	
23	서울공대는 그동안 micro management에 치중하느라, 큰 방향에 대한 담론 형성이 없었다	학장	
24	이제는 교육이 아니라 학습의 시대이다. 교수는 창의적 학습을 위한 유도자가 되어야 한다	교무	
25	본부 창업지원위원회는 오히려 창업에 방해만 되고 있다	창업	
26	신임교수 가이드라인이 더 충실했으면 한다. 종합 패키지가 필요하다. 대부분 알음알음 해결하고 있다	교무	
27	301동 안전시스템이 면밀하게 작동되는지 우려된다. 엘리베이터의 비상전화는 제대로 작동하는지?	시설	
28	신공학과에 주말 식당이 없어 교수와 학생 모두 힘들어 하고 있다	학생	
29	카이스트는 겸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다. 배울 건 배워야한다	교무	
30	서울공대는 시흥캠퍼스를 잘 활용하자. 특히 스케일업 실증단지 등	기획	
31	첨단융합학부, 반도체특성화대학원 등 새로 일어나는 조직에 대한 공대 차원의 토론이 너무 없다	학장	
32	본공학과 33동 옆 해동 빌딩에 세콤이 들어와 있다. 공대 차원의 사용 효율을 높여야 한다	기획	

33	외국에 비해 기금석좌교수가 너무 적다. 자금심 문제다	기획	
34	서울공대 홍보가 너무 약하다. 홍보는 실험실을 찍어야 한다	홍보	
35	서울공대 R&D의 산업체는 25% 정도 차지, 연구소가 산학의 연결고리가 되어 전략적 제휴가 다각도로 일어나야한다	연구	
36	학부학과가 밖으로 뿔 때 학장단이 함께 뛰어야 한다. 이미 네트워크가 풍부한 교수님들의 역할이 일어나게 하자	학장	
37	Paperless 아직 많이 부족, 전자서명 등도 대부분 출력해서 사인 후 스캔한다. 첨부파일 없애기 캠페인하자	기획	
38	학부도 그렇지만, 대학원생 학력 저하도 문제다. 대학원 입학기준을 더 높여야한다	교무	
39	서울공대 입시가 특히 취약하다는 것을 학원가에서 다 알고 있다. 거쳐가는 학생들 대책이 절실하다	교무	
40	이공계는 대학원생이 많아 논문연구학점을 높여야 한다. 대신 성과물을 제출하여도 된다	교무	
41	공학연구원 인건비 정산 업무를 산단으로 이관 요청하고, 잉여 예산으로 연구 기획 및 각 연구소 지원을 하자	연구	
42	서울공대의 스피릿이 필요하다. 스포츠, 졸업식, 청년강연 등 서울공대만의 전통을 만들어보자	기획	
43	신공학관 내외부에 창의적 공간이 부족하다. 산책로도 지저분하거나 관리가 안되고 있다	시설	
44	신입생 residential college가 자칫 고등학교 4학년이 되면 안된다	교무	
45	학생들이 선정한 서울공대 영예로운 동문상은 어떤까?	학생	
46	유퀴즈, 세바시 등 유명 프로그램이나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홍보	
47	서울공대만 보더라도 국제화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 영문 문서 등의 오타자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국제	
48	학생 조교 선발을 2년마다 해야해서 너무 힘들다	교무	
49	외품을 막아주면서 개인 교수들을 보호해주는 학장이 필요하다. 본의아니게 위법을 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학장	
50	입시 과학교육 배점은 공대가 정할 수 있다. 이제는 서울공대에 정말 들어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잘 뽑는 수 밖에 없다	교무	

51	General engineering이라는 학사학위명도 고려할만 하다	교무	
52	융합연구를 지향하기 위해 다른 학부학과와 공저자인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면 어떤가?	연구	
53	서버 공간 부족이 매우 심각하다. 연구소는 전력 사용료를 내야 하고, 학과부 건물은 그렇지 않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시설	
54	IP는 스탠포드를 벤치마킹 하길 바란다. 창업은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때만 경쟁력이 있다	창업	
55	산학협력이 교원업적평가 중 기타에 들어가 있다. 서울공대만의 업적평가 기준이 필요하다	교무	
56	공대 창업 성공 Top 3%는 의대보다 낮다. 이런게 홍보되어야 한다	홍보	
57	공대 교수 전체 생애주기를 고려한 큰 그림이 필요하다. 교육의 주체도 학부-대학원-박사후과정까지 포함해야 한다	교무	
58	BK 업적 조사는 왜 매번 엑셀에 입력해야하나? 공대만이라도 작은 부분에서 선진화 해보자	연구	
59	연구소 소장이나 운영부장 간담회가 한동안 전혀 없었다. 자체 직원 인건비 등 연구소 간 조율이 필요하다	연구	
60	공대 행정실 회계 업무가 통합되어야 효율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예산 출처에 따라 다 나뉘어져 있다	학장	
61	서울공대 해외 동문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개도국의 경우는 국제 협력의 시작점이 된다	홍보	
62	정부 부처와의 협력도 외연을 넓힐 필요가 있다. 국방이나 방산 예산도 매우 중요하다	학장	
63	MIT Review처럼 공학기술을 진단하고 전망하는 역할을 서울공대가 하여야한다	학장	
64	중국의 경우 학부생을 해외 인턴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꽤 있다. 적극 유치하자	학생	
65	선진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서울공대로 포닥을 오는 유인책이 필요하다. 그래야 세계적 연구중심 대학이다	연구	
66	학부생이 응모하는 자체 연구비가 작게라도 있으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다	연구	
67	본부 TA 지원사업은 학부생의 경우 자격이 안된다. 학부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공대 차원의 지원에 더 명분이 있다	교무	
68	조교수는 연구 인프라가 생기도록 지원이 필요하고, 부교수는 연구 인프라 운영의 효율을 높이는 지원이 중요하다	연구	

69	우리 대학 포털은 정보의 검색이 매우 어렵도록 정보들을 올리고 있다. 그림 파일 등이 전형적 사례이다	정보	
70	65세 그만두기에는 아까운 서울공대 교수들이 꽤 있다. 카이스트나 포스텍의 변화를 눈여겨 봐야한다	교무	
71	전국 0.1% 근로소득이 9억원이고 1%는 4억원이다. 서울공대 교수의 연봉과 처우도 이 기준에 가깝게 개선되어야 한다	교무	
72	서울공대도 이제는 양적 팽창보다는 질적 내실을 다질 때가 되었다. 시설도 이제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기획	
73	서울공대 졸업생들의 성공 사례를 잘 분석하여 공대를 나온 merit을 널리 홍보하면 좋겠다	홍보	
74	서울공대 기획실은 대부분 시설 기획에 치우쳐 있다. 이러니 행정 개선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기획	
75	연구비로 공학에서의 택시 비용 처리가 되면 좋겠다. 행정지원 인건비도 풀링이 가능하도록 건의하면 어떤가?	연구	
76	서울공대 특히 신공학관의 건물과 환경은 디테일이 떨어지고 통일성이 없다. 우리도 이제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다	시설	
77	연구제안서 작성 워크숍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젊은 교수님들의 연구에 대한 세심한 씨포트가 중요하다	연구	
78	이제 행정 개선도 AI foundation model 등으로 가능한 시대다. 적극 도입하자	기획	
79	수능이 너무 쉬워 학생 이탈자는 대부분 정시에서 나온다. 본고사에 준하는 지필고사를 부활해야한다	교무	
80	행정 비서 면접이 너무 어렵다. 공대 차원에서 좋은 풀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지?	연구	
81	신임교수 정착금 처리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의 연구 기자재도 시스템에서 볼 수 없다	기획	
82	예전 학장님들이 추진하였던 좋은 시도들을 복기해보자. 정부 부처 동문 초청행사 등이 그 사례이다	학장	
83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이외에 (또는 대신) 책임시수 감면이나 위원회 등의 행정업무 제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교무	
84	학부생 이메일은 gmail에서 콘트롤하고 있는데, 서울대 이메일 대부분을 gmail에서 spam 처리하고 있다	정보	
85	서남아시아에도 유학생 풀이 꽤 많은데, 서울공대로 유입이 안되고 있다	교무	
86	네덜란드 ASML 기술처럼 서울공대만 보유한 기술 개발하겠다는 비전이 중요하다	학장	
87	의대의 병원처럼 공대는 왜 병원과 같은 독립법인을 만들지 못하나?	학장	
88	조교수는 창업에서 원칙적으로 불허되고 있다. 조교수의 창업은 왜 발굴하지 못하는가?	연구	
89	행정업무별 고유 이메일 주소를 만들면 직원 교체시마다 이메일을 다르게 보낼 필요가 없다	기획	
90	에베레스트 등반도 베이스 캠프부터 한다. 베이스캠프를 어디에 설정하는가가 서울공대의 역할이다	학장	
91	신임교수 해외 이주비용이 있는 줄도 몰랐고 교수아파트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몰랐다	교무	
92	CES는 기성 연구자보다 젊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공대 차원의 지원을 생각해 볼 때다	학생	
93	하이브리드 강의를 늘리고 ETL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하면 대형강의의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교무	
94	실험실 안전이 아직도 형식화 되어 있어 효용성이 많이 떨어진다. 대학원생들만 힘들다	연구	
95	과목당 TA 최대 지원 인원수가 4명까지여서 120명 이상은 매우 힘들다. 대형과제에 대한 지원책이 아쉽다	교무	
96	Machine room, stock room이 신&본 공학관에 하나씩 있으면 좋겠다	연구	
97	학교 시설 미비로 인한 연구실 안전 문제는 공대차원의 지원해결되길 바란다	연구	
98	협동과정, 연계전공, 연합전공 등에도 전임교수를 두어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교수의 추가 업무량만 늘어난다	교무	
99	발전계획 보고서에는 여러 번 있었지만 많은 부분 유사했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학장	
100	To Be Continued!		모두